

나지완 살아나고
손영민 돌아오고

KIA 4강싸움 이제부터

① 프로야구 전망대

가을잔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벼랑 끝에서 기사화됐던 KIA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4강을 위한 숨겨진 레이스를 이어간다.
잔여경기 일정도 도입되면서 이동이 복잡하다.
주중 군산에서 삼성과 3연전을 치른 KIA는 31일과 9월1일 안방에서 한화를 만난다. 9월2일에는 대전으로 건너가 한화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KIA는 4강 길목에서 만난 SK에게 싸움이 3연패를 당하는 등 지난주 7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가을 싸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삼성·한화와 6연전... 실책 관리 관건

그러나 22일 나지완의 연타석 홈런을 신호탄으로 해 불이 붙은 방망이가 4경기에서 30득점을 몰아내며 연승행진을 이었다. 4경기에서 홈런도 5개가 터졌다.
윤석민-소사-앤서니-서재응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25이닝 7실점(5자책), 1.80의 방어율로 기선싸움에 앞장섰다.
불펜도 손영민의 복귀로 날개를 달았다. 지난 주 3차례 등판한 손영민은 3과3분의2 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사구 하나만을 내주는 완벽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
타격 상승세와 함께 마운드의 꾸준함까지 더해지면서 KIA는 남은 순위 싸움에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수비라는 내부의 적과 비

라는 변수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최소실책(67개)을 기록했던 KIA는 올 시즌 불안한 수비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16-4의 대승을 거뒀던 25일에도 5개의 실책을 연발하면서 뒤끝이 개운하지 못했다.
71개의 실책으로 올 시즌 LG(81개)에 이어 실책 2위에 올라 있는 KIA의 꼼꼼한 수비가 절실하다.
비도 변수다. KIA는 18차례 우천취소로 101경기만을 소화했다. KIA 윤석민과 삼성 윤성환의 선발 맞대결이 예고된 28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미 잔여경기 일정도 발표된 상황에서

■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2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105	61	42	2	0.592	0	3승
2 롯데	105	55	46	4	0.545	5.0	2승
3 SK	106	56	48	2	0.538	5.5	1패
4 두산	106	55	50	1	0.524	7.0	2패
5 KIA	101	49	48	4	0.505	9.0	4승
6 넥센	104	50	52	2	0.490	10.5	1승
7 LG	106	44	59	3	0.427	17.0	5패
8 한화	105	39	64	2	0.379	22.0	4패

비가 계속되면 KIA는 휴식날 없이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체력싸움의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KIA는 5연승을 달리던 지난 10일 우천으로 롯데와의 경기를 인 뒤 상승세가 꺾이며 7연패에 빠졌다. 14일 LG와의 경기에서는 5-2로 앞선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며 노게임이 선언되기도 했다.



나지완



손영민

주전들의 부상이 계속된 시즌 초반에는 반가운 손님이었던 비가 가을이 다가오면서 불청객이 되고 말았다.

한편 KIA는 앞으로 51투타를 더하면 역대 두 번째로 4만9000투타를 기록한 팀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팔랑이 뺨뺨와 소 타기?

26일(현지시각) 독일 슈테른베르크 남부 바버리안 마을에서 열린 전통 소경주대회에서 경기에 참가한 농부가 황소에 올라타고 있다. 이 대회에는 24명의 농부가 자신들의 황소와 함께 참가해 경주를 펼쳤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최소경기 600만 돌파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전국 4개 구장에 4만8592명이 찾으면서 2012프로야구 누적 관객이 604만 6019명이 됐다. 419경기 만에 600만 관객을 넘어선 프로야구는 지난해 작성된 역대 최소경기인 466경기보다 47경기를 앞당겼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600만 관객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사상 첫 700만 관객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

다.
계속된 폭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프로야구 평균 관객은 지난해 보다 1236명 증가한 1만4430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9%가 증가한 수치로 최종 예상 관객은 767만6760명이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419경기 중 110경기가 매진됐고, 평일 매진도 38차례를 기록했다. 전 구장 매진도 전체 7차례로 역대 최다인 지난해 5차례 기록을 넘어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야구 미래 본다

12개국 참가 '청소년 선수권' 30일 서울 개막

세계야구의 미래 주역들이 서울에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12개국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제25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는 30일 개막을 올린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9월8일까지 잠실·목동구장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한국은 국제야구연맹(IBAF)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1981년 초대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994·2000·2006·2008년 5차례 정상에 올랐다.
천안 북일고 이정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안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에서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메이저리그와 세계 프로야구를 누빌 미래 스타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승엽(삼성), 이대호(오릭스), 김태균(한화), 김광현(SK) 등이 한국 야구의 '황금

세대'들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2008년 대회 우승 멤버인 안치홍(KIA), 오지환(LG), 김상수(삼성), 정수빈(두산)은 프로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각 팀의 기동으로 성장했다.
2013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NC의 지명을 받은 유희배(북일고)가 한국의 '에이스'로 선배들의 위업을 잇겠다는 각오다. 진흥고 4번 타자 윤대영도 대표팀의 중심타자로 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미국, 호주, 콜롬비아와 A조에 속한 한국은 30일부터 9월3일까지 풀 리그 방식으로 5경기를 치른다. 조 3위 안에 들면 2라운드에서 B조 1~3위 팀과 맞붙어 승위를 정하게 된다. 2라운드에서 1~2위 안에 들면 8일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B조에는 일본, 캐나다, 대만, 파나마, 체코, 이탈리아가 포진했다.
안방에서 우승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은 30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네덜란드와 대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

호남대 최다회 사브르 준우승

'한미대학펜싱초청대회' 개인전

호남대 최다회(스포츠레저학과 2·사진)가 '한미대학펜싱초청대회' 여자 대학부 사브르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다회는 최근 인천 송도의 한국뉴욕주립대학 체육관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14-15로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11개 팀과 미국 11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한편 지난해 창단된 호남대 펜싱부는 김병진 코치의 지도 속에 2011 전국체전 여자일반 사브르 단체전(최다회, 한두미, 서희)에서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올 시즌 권민아(스포츠레저학과)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는 등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후배들이 꿈을 향해 쏘라"

기보배, 광주 양궁 초·중 꿈나무 찾아 격려



"땀의 결과입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쏘라." /연합뉴스
런던올림픽 양궁 2관왕인 기보배(사진 앞줄 맨 오른쪽)가 광주의 양궁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보배는 27일 은사인 광주여대 김성은 감독과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을 찾아 지역 양궁 선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기보배는 백일초, 유춘초, 은리중, 동명중에서 양궁을 하고 있는 22명의 선수들에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다. 땀의 결과로 올림픽 2관왕이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하루하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노력을 당부했다."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기보배는 '기보배 효과'도 남기고 있다.
윤준찬 장학사는 "기보배 선수의 활약 덕분에 양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관내 양궁부에만 최근 7명의 학생이 새로 지원하는 등 광주에 양궁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FC 14위로 시즌 마감

K리그...경남에 1-2 패

광주 FC가 14위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감했다.
광주 FC는 지난 2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 FC와의 K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최현연에 역전골을 내주며 1-2로 패했다.
전반 33분 김은선의 골로 광주가 선취점을 올렸지만 후반 7분과 18분 경남 고재성과 최현연의 골이 나오면서 전세가 뒤집혔다.
승점을 더하지 못한 광주는 6승9무15패(승점 27), 14위로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위 전남(승점 29점), 최하위 강원(승점 25)과는 승점 2점 차이다.
14위에 그친 광주는 B그룹에서 9월15일

시작되는 스플릿 시스템 일정을 시작한다. 반면 대구에 승점 2점이 뒤져 9위에 자리했던 경남은 정규리그 최종전 승리로 8위에 오르며 상위 스플릿에서 우승을 다투게 됐다.
한편 올 시즌 도입되는 스플릿 시스템은 정규리그 30라운드 성적을 기준으로 1~8위 팀을 '그룹A', 9~16위 팀을 '그룹B'로 나눠 진행된다. 홈-어웨이로 14경기를 치르게 되며 정규리그에서 쌓은 승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룹 A는 K리그 우승을 다투게 되고, 그룹B는 1부리그 잔류를 위한 전쟁을 벌인다. 그룹B의 하위 두 개팀은 승강제 도입에 따라 1부리그에서 제외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